

고려신문

고려신문

2 (2) 2015년 2월 26일

연해주의 민족문화자치회들과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제2차 연해주 민족대회



10월 30일 루스키섬에서 연해주의 민족문화자치회들과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제2차 연해주 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정부

가 연해주민족양상블 및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한 지난 포럼의 주요한 테마는

사회 내 국민 통합과 여러 민족 간의 화합 강화,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의 발전 그리고 민족 문화 유산의 보존 등이었다. 블라디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지사는 대회의 총회를 개최하면서 손님들과 참석자들에게 오는 민족통합의 날을 축하하고 연해주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곳에는 150여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각자는 지역 발전에 나름대로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연해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 다른 민족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연

라이사 안드레이체바는 기념메달 <러시아의 애국자>를 수여받았다.

대회 도중 블라디미르 미클루셴스키 주지사와 대한민국 대표단의 회견이 이루어졌다. 이 회견에서 주지사는 상호 유익한 우애관계를 위한 선진적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지역건설에 대해 얘기하였다. 과거 서방기업이 점유했고 있던 시장의 개방과 동방 파트너들과의 경제 관계 발전이 한러국제관계의 지속적 확장 계획에서 장기적 방향이다.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위원인 알렉 김은 주체토론분과의 한 곳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민족 간 단합 강화에 관한 문제들이 심의되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다민족 지역에서 화합을 확립하는 사업에서는 자라나는 세대 교육, 청년프로그

램 조직,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문화 분야의 발전 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럼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족우호 - 연해주의 힘> 전시회가 조직되었다. 손님들은 이 전시회를 통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각자 다른 민족들 - 벨로루시인, 우크라이나인, 다게스탄인, 아르메니아인, 타타르인들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전시물에는 장식용 응용예술품, 민족의상, 악기 그리고 연해주 고려인의 삶을 얘기해주는 역사문헌 등이 포함되었다.

내년에는 연해주의 사회생활에서 더욱더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새로운 3차 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타티아나 크라브첸코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
구원 김종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파рти잔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 새로운 회장 선출

11월 8일 파티잔 스크 시에서는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파티잔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수찬”



특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2014년 11월 8일 파티잔스크 시에서는 민족문화자치회 “수찬” 위원들의 특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랫동안 민족문화자

필 김 발레리야 인노첸치예브나 그리고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교육부장 조 엘레나 하리토노브나 등이 초대되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치회 운영의 근대화, 의사결정의 민주화 그리고 지도기관 성원의 세대교체에 대해 심의했다.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인사말에서 “수찬”이 파티잔스크에서 조 직된 최초의 고려인 사회단체로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이 됨을 언급하였다. 이 전체 기간 동안 “수찬”은 연해주의 다른 많은 단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수찬”의 활동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신임 회장과 공동 협력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했으며, “수찬”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자치회에서 다년간 활동한 리 A.X.가 부문 사업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하였다.

첸 H.B., 김 M.B., 김 H.A.가 또한 심의회에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자치회의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거기에는 청년 대 표들도 들어갔다. 파티잔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수찬”의 회장에는 이 타



마라 프로코피예브나 수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김 알렉산드르 알레고비치 등 2명이 임후 보하였다. 자치회 위원들의 거 발레리야 김

연해주 유입 관광객 수를 2017년까지 5백만 명으로 증가시킬 계획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대한 투자 의욕 제고 역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톡, 12월 12일, 프리마 미디어. 연해주 유입 관광객 수 증강을 위한 대책은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다. 프리마 미디어가 전하기를 주정부 사이트에서 개최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연해주 국제협력 및 관광발전국 부국장 블라디미르 슈르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제고하며, 2017년까지 관광객 수를 5백만 명으로 증

가시키고, 이후 매년 1천만에서 1천2백만 명으로 관광객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슈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해주의 국정 계획인 2013-2017년 <연해주 관광 발전>의 실현 차원에서 연해주 국제협력 및 관광발전국은 통합 엔터테인먼트 존(지역)인 ‘루스키’ 섬을 포함

한 연해주 내에서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단지 개발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광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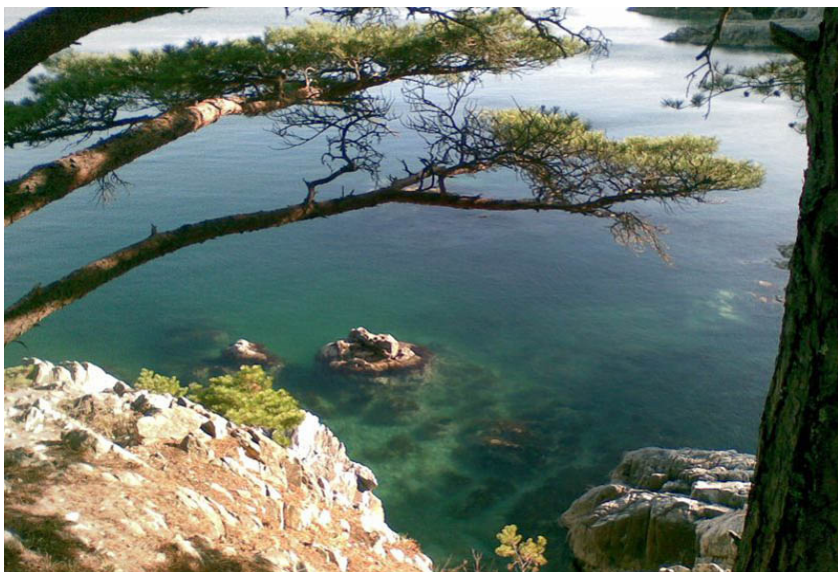
과 운영, 관광 서비스 리된 거주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 노선 개발

년 5백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해주에 대한 투자 의욕 제고하며, 2017년까지 관광객 수를 5백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매년 1천만에서 1천2백만 명으로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2017년까지 유입 관광객 수를 매

연해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연해주를 방문한 사람은 336만 6천 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3만 명이 증가했다.

연해주에 집결되어 있는 독특한 자연 자원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214개의 천연 기념물, 세 곳의 국립 공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연해주 내에는 약 184개의 국립 및 공립 박물관, 화랑, 예술품 갤러리, 2천개가 넘는 역사 및 문화 기념물이 분포해 있다. 프리마 미디어



대한민국 총영사께서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 작별을 고했다

2014년 11월 7일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이양구 총영사의 공식 송별연이 개최되었다.

이 만남은 “의전상의 공식 송별”이라기보다는 다정한 짧은 이별식

에 더 가까웠다.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김 회장은 총영사의 열정적이고 유익한 활동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또한 지역에서 우호적인 민족 간 관계수립에 기

여한 그의 역할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박수갈채 속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이양구 총영사에게 아름다운 문구가 쓰여진 감사패를 건넸다.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양구 총영사님께 러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미래 세대의 복지와 민족전통, 언어, 문화의 부흥에 기여한 귀중한 공헌을 기립니다.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우수리스크 2014년“

총영사는 다음과 같은 답사를 했다. “제가 이곳에 이토록 우울한 기분으로 온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우수리스크는 특별



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수리스크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알려 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화, 신문, 교육, 역사 이 네 가지가 민족을 결정한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미래 세대는 훨씬 편안할 것입니다. 저는 연해주의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잘 살고 발전한 것은 물론, 연해주의 다른 민족들과 화목한 가족처럼 좋은 관계

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성원들은 총영사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진심어린 답사와 축복을 이어갔다.

발레리아 김



두뇌 스포츠에서의 한국어

2014 한국어 올림픽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를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다양한 연령층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극동지역 주민들 중에서 출전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준비 수준이 성장하고 있다.

연해주 주도에 위치한 푸쉬킨 극장 무대에서 극이 펼쳐졌으며, 사물놀이 패 ‘해동’이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줬다. 청년 사물놀이패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있는 후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한국어 경연이 참가번호에 따라 흥미롭고도 진지하

게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 프레젠테이션마다 제시된 풍부한 일련의 삽화 덕분에 객석에 있던 관객들과 팬들은,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조차 각 참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올림픽 심판진은 극동연방대학,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톡 소재 두비닌 학교 소속의 한국어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승자를 결정하는 동안 무대에서 있는 학생들이 객석의 관중들에게 한국 민담을 들려주었다.

수상식이 있는 후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이 있었는데, 한국 국수를 탄 사람도 있었고, 스마

트폰을 탄 사람도 있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양양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받은 이도 있었다.

헛된 노력은 없다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트라와 한국관광공사는 국제적인 의미를 지닌 사업의 진행을 지원해 주었다. 이번에도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이 올림픽을 주최했다. 한국교육원의 이진영 원장은 ‘고려신문’ 특파원과 대담에서 올해 학생들의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이 한

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모든 수상자들은 상품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가져본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올림픽의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입학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회사에서 일할 것인지

또는 단순히 한국어를 계속해서 배울 것인지 등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4 페이지



두뇌 스포츠에서의 한국어

또한 이진영 원 서, 한국과 한국 첫 수업 때부터
장은 한국어를 사 역사 그리고 문 한국어에 흥미를
랑하는 젊은이들 화에 대해 진지한 느끼기 시작했다.
이 학생들이 한국 관심을 보여주길 그녀는 한국의 역
어를 열심히 공부 원한다고 했다. 사와 문화를 고국
하고, 자신의 미 **실습의 미묘함** 의 언어로 이해한
래를 미리 고민해 우수리스크 29 다는 게 매우 재
보기를 바란다고 번 중등학교 9학 미있었다고 한다.
했다. 올림픽 참 년 학생으로 초 크리스티나 김은
가를 사전에 준비 중 고등학생 참가 올림픽에 참가하
하면서 한국어로 자 중에서 2014 기 위해 “내가 진
작문해 보고, 한 년 한국어 올림픽 학하고 싶은 대
국에 더해 더 많 우승자인 크리스 학”이라는 테마
이 알려고 하고, 티나 김은 3년 전 를 준비하여, 대
한국에 관한 책을 부터 한국어를 배 한민국에서의 의
읽고 방송을 보면 우기 시작했는데, 대에 진학하고 싶



다는 뜻을 얘기했 경험을 쌓았습니 서 일등을 했다. 특 28번 중등학
다. 올림픽을 준 이등은 마리아 리 교)와 파벨 보로
“제시된 작문 비하면서 새로운 (우수리스크 고려

주제 덕분에 저 단어들을 많이 알 인문화센터 10학 교 4학년), 류드
는 최근 제가 고 게 되었으며, 발 년)와 알리나 니 밀라 알렉순(모스
민하고 있는 문제 음도 좋아졌습니 가예바(우수리스 크바국립대학
에 관해 대중들에 다. 그리고 무대 크 고려인문화센 2학년), 에르제나
게 말할 수 있었 에 선 경험은 대 터 9학년), 예브 치텐담바예바(극
습니다. 현재 새 중을 두려워하지 게니 소코프(극 동연방대학교 2
로운 기술들이 등 았도록 도움을 주 동연방대학교 4 학년) 등이다.

장하고, 사람들은 었습니다. 앞으로 학년) 그리고 마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기기를 발 도 한국어는 제 리나 김(극동연방 지목한 2014년
명하고 있지만 왜 인생과 밀접하게 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 올림픽 수
아직까지도 다양 관련되어 있을 겁 3학년)이 차지했 상자들은 증명서
한 암 백신을 발 니다. 왜냐하면 다. 3등 수상자는 뿐만 아니라, 상
명하지 못하고 있 저는 한국에서 대 아나스타시야 지 금도 받았다. 한
을까요? 매년 환 학에 진학하여 그 틀로(28번 중등 국어로 대중 앞에
자들이 이 무서 곳에서 살 계획이 학교 8학년), 야 서는 좋은 실습과
운 질병으로 사망 기 때문입니다. 나 김(우수리스크 승리의 맛은 우수
하고 있음에도 불 수상자들 고려인문화센터 자 모두에게 적잖
구하고 사람들은 초·중·고등 학 10학년) 그리고 이 중요한 수확이
여전히 암을 상대 생 분야 우승자인 크세니야 읍친니 다.

로 두려움없이 투 크리스티나 김 외 코바(블라디보스 올가 시필로바
쟁하고 있습니다. 에 다른 참
그래서 그들이 준 가자들도
경반을 자격이 있 한국어 올
는 것입니다. 바 림픽 메달
로 이게 제 글에 리스트가
서 말하고 싶었던 되었다. 크
것입니다. 이번 세니야 티
올림픽에 참가하 토바는 대
는 동안 저는 큰 학생 중에

